

대승의 바다에서 원시불교의 심연으로

‘원전성’ 확보 위한 번역 및 연구 활발... 불교출판의 처녀림 개간

고타마 붓다의 原音, 그 사자후가 손타지 않은 처녀림처럼 생생하고도 순결하게 담긴 원시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未知의 땅이었다. 불교전래 원년인 372년 이후 일천 육백여년간 없었던 것과 진배없었다. 원시불교 연구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고 관련서적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들어서였다. 그 이후 관심과 이해의 심도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 그것을 한 논자는, 성급하게도, “불교의 제2전래”라 명명하기도 했다. 전통적 대승불교권의 하나인 우리 불교계에서 원시불교 연구는 최근 한 세대 기간동안 다소 신난한 인경투쟁 끝에 존재의의를 확보케 된 것이다.

거기에 더 보태어 우리 불교학계에서는 최근 ‘흙으로’ ‘공장으로’에 비견될 만한 ‘原典으로’라는 브나로드운동이 시작됐다. 불교의 제2 전래에 이어 원시불교에 대한 원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불교의 르네상스”를 맞이 하자는 동향이 있다. 그것은 농익은 성과를 담은 출판물을 통해서도 급세 확인된다. 알찬 내용을 담은 원시불교 원전 번역서·연구서들은 우리 불교학계의 브나로드 운동가들이 과격하거나 급진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다만 근본적인 뿐이다. 한 연구집단의 이름은 ‘고요한 소리’다.

‘원시불교 원전으로’라는 브나로드운동

우리 譯經史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원전 譯經士’들이 말하는 ‘원전으로’의 당위성은 이렇다. 우리가 접하는 ‘한글 경전’은 산스크리트→한문→한글 순서로 옮겨진 重譯本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복사기를 거친 복사물을 다시 복사한 再 복사물처럼 흐려지게 마련이다. 세 언어는 계통상으로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사이어서 오역의 가능성은 거의 숙명적이란 설명이다. 특히 가운데에 낀 한문은 그의 구조상 침식의 여지가 광활하다. 그런데 불경의 오역은 붓다에 대한 오해, 즉 不敬이므로 난처한 일이다.

지난 연말에 범어와 팔리어로 된 원전의 한글 옮김에 대한 방법론을 깊이있게 천착한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를 상재한 최봉수씨(불교 원전 번역 연구소장)는 그 책에서 한 예문을 제시했다. 꼼꼼한 번역으로 이름높은 현장법사의 「俱舍論」 중 “愚根樂三故 說蘊處界三”. 그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면 “어리석은 근기는 셋을 좋아하기에 온·처·계 셋을 설한다”이

원시불교와 그 원전을 다룬 출판물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원시불교를 찾아가는 현대판 삼장법사,

‘원전으로’를 외치는 소장학자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한역대장경」을

제외한 팔리어·산스크리트어·티벳어

대장경들은 간헐적으로 소개됐었다.

바야흐로 번역이론을 토대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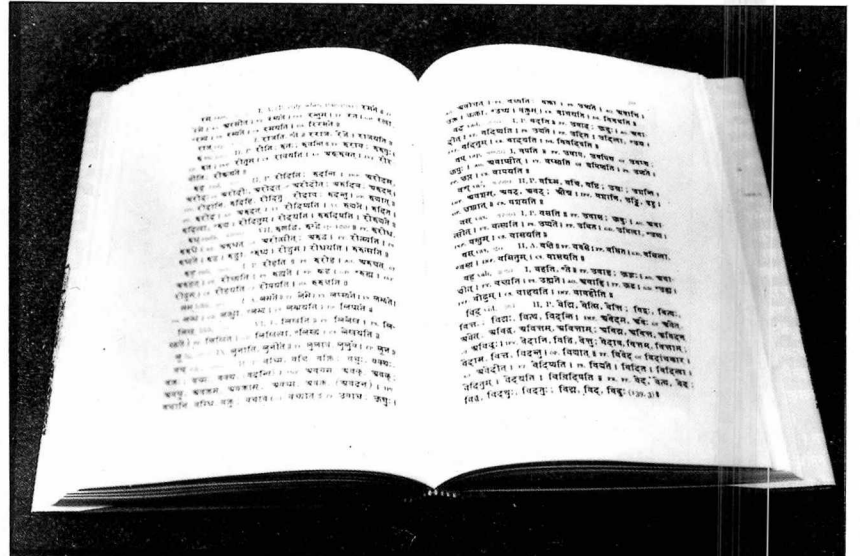
원전 번역·연구가 본격화된 것이다.

다. 그러나 원전을 직접 국역하면 “어리석음과 근기와 성향이 각각 세 종류이기에 온 등으로 설한다”이다. 저자는 묻는다. “얼마나 다른가”. 그는 이어 「구사론」에서 번역이 아닌 현장법사의 주석에 가까운 문장도 짚어낸다.

문법책 「산스크리트 입문」(이문출판사, 1989)과 역서 「원시불교와 부파불교」를 낸 이지수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서양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소수의 사제들만이 독점했던 라틴어 성경을 민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이루어졌다”며 불전 국역의 방향을 제시한다. “범어로 씌어진 원문을 오랜 세월이 걸쳐 인도·중앙아시아·중국 등의 역경가들이 단독으로 혹은 그룹으로 번역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유한 대장경이다. 한문본만으로는 원본의 의미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거나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범어본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한역본과 대조해 번역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본의 형식적 구조를 잘 드러낸 티벳장경을 참조하면 금상첨화겠다.”

따라서 원시불교 원전번역의 당위성은 첫째로는 중역에서 파생하는 운명적 오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붓다의 원음 그 자체는 가장 쉬운 형태의 언어이므로 그것의 번역은 불교의 弘布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즉 불교학의 엄정한 학문화와 불교의 실질적 대중화의 전제로서 원전성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연구자들은 입을 모은다.

불교원전은 1차원적인 팔리어 원전과 범어 원전이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총서가 원시불교의 성전인 「팔리어 3장」이다. 「서유기」



“「아함경」을 비롯한 원시불교 경전의 대중화는 불교의 제2전래요, 그 원전성의 확보는 한국불교의 르네상스를 부를 것이다.” 사진은 산스크리트의 주요 동사들.

에 나오는 삼장법사란 바로 「팔리어 3장」을 구하려 갔대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승경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원시불교의 진면목을 집성한 원전이다. 「한역대장경」과 「티벳대장경」은 2차원전으로 분류된다. 「한역대장경」은 중국화한 불교경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개됐으므로 한국의 불교연구의 제1자료가 돼왔다. 「티벳대장경」은 불교발상지 인도에서는 소실된 산스크리트 원전을 충실히 직역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원시불교관련 연구서·번역서 100여종

우리나라에서는 「한역대장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번역·연구는 간간이 이루어져 왔다. 통일된 번역이론을 토대로 한 한글옮김이 아니어서 그 번역서들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습작’에 가까웠다. 그중 이기영씨의 「금강경」이나 원희범씨의 「숫타니파타」 등은 각각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원전을 본래있게 번역한 작품으로 꼽힌다. 88년에 나온 석진오 스님의 「금강경연구」(고려원)는 산스크리트본·몽고본·한역본 번역을 한권에 묶은 책이다. 거해스님 편역의 「법구경」(고려원)도 팔리어 원본을 직접 우리말로 멋있게 옮긴 책으로 정평이 나왔다.

90년대 들어서 원전번역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소장학자들의 성과물이 속출했다. 원시불교연구의 춘추전국시대이자 원전번역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근래에 산출되는 원시불교 관련논문에서 원전인용을 못할 경우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구박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최근 출간되는 관계서적은 시리즈 제목을 아예 ‘원전의 세계’라고 못박는다. 시리즈가

아닌 단발 출판물의 경우에는 제목 앞에 ‘원전이 들려주는...’이란 수식어를 반드시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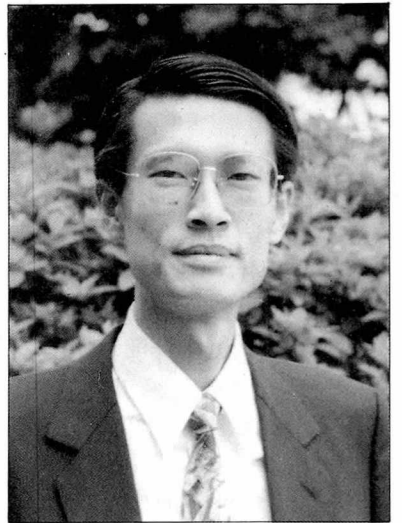
불광출판부 「원전의 세계」시리즈의 「고타마 붓다」 「불교의 진리」 「업과 윤회」는 팔리 경전의 내용을 최봉수씨가 주제별로 편역한 원시불교 3부작이다. 원시경전 원본에 의거한 본격적인 번역인 이 책은 그런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무척 높다고 출판사측은 전한다. 민족사의 「마음으로 읽는 불전」 시리즈는 ‘초기불교’(원시불교) 경전의 본격적 번역으로 주목받아온 기획물이다. 최근엔 붓다의 親觀인 팔리어 경전 등 1차 원전을 옮기고 있다. 더구나 동국대 불교학과와 인도철학과 등에서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가 필수 혹은 선택과목으로 개설돼 있어 장차 원전번역 및 원전을 토대로 한 연구의 시대가 만개할 것임을 예고한다.

그 1차원적인 문법교재는 산스크리트어의 경우 3, 4종 정도의 입문서가 나와 있다. 최초의 문법책은 정태혁교수의 「표준 범어학」(불서보급사, 1968)이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Gonda의 문법서(1948)에 대한 불역본·영역본(1966), 일역본을 편역했다. 60년대 말에는 문법책도 중역되어 나타났던 셈이다. 그 후 「산스크리트 입문」(이지수 편역, 이문출판사, 1989)과 「산스크리트어 문법」(J. Gonda 저·정호영 역, 한국불교연구원출판부)이 더 나왔다. 팔리어 문법책의 제1탄은 올해 2월에 출간된 「불교원전언어연구」(최봉수 편)이다. 역시 일본의 미즈노 박사가 펴낸 문법책 내용을 근간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출간된 원시불교 관계연구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그외에 원시불교의 경전들,

“부처의 原音재생에 젊음을 공양한다”

불교원전번역연구소 최봉수 소장



원시불교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자는 김동화씨. 그는 「원시불교사상」 「구사학」 「원시불교사상론」 「불교교리발달사」 등 일련의 관련저작을 펴냈다. 그러나 독창적 저서라기보다는 일본연구서의 편서에 가깝다는 평가이다.

원시불교의 황무지를 개간한 개척자로서는故 고익진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꼽힌다. 1970년 석사논문으로 발표한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90년에 동대출판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됨)는 한국불교학계에서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당시로서는 ‘하찮은 불교’인 원시불교의 경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아함경을 연구한 그 논문을 계기로 원시불교 및 아함경의 진가가 발굴됐다. 그러나 팔리어 원전이 아닌 한역 4아함을 전거로 삼았다.

원전연구를 통한 본격적인 원시불교연구는 고익진씨의 일군의 제자들에게 의해 펼쳐지고 있다. 그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이가 최봉수씨(33)이다. 89년, 그의 나이 28세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强者이며, 붓다의 原音を 재생하는 데 젊음을 공양하고 있다.

최씨는 스승인 고익진교수의 생애를 「아마테우스」의 모짜르트의 인생에 비유했다. 원시불교를 폄하했던 당시 한국불교계의 풍토가 살리에르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최봉수씨는 원시불교 원전연구 분야의 베토벤이라 할 만하다. 장중한 연구서를 이미 여러종 발표했고, 그가 원장으로 있는 불교원전 번역연구소의 활동상황 및 계획을 듣노라면 합창교향곡을 방불한다.

그 연구소는 첫단계 사업으로 「梵韓사전」과 「巴韓사전」을 편찬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출간된 「불교원전언어연구」(연구소 刊)는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작업인 셈이다. 내년 초에 「독본」이 출간되며, 그 이후 사전이 나오게 된다. 제2단계 사업은 불교원전 번역학의 정립.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가 바로 그 성과물이다. 그 다음엔 20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3, 40권 분량의 원전번역을 끝낼 작정이라 한다. 그러나 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한 公刊여부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연구소와 최봉수씨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일 터이다.

21세기에 벌어질 「정선되고 통일된 우리

즉 「아함경」 「본생경」 「숫타니파타」 「법구경」 등등의 번역서 및 편역서는 70여종을 상회한다. 그 대부분은 일역본이나 한역본의 국역판들이다. 예를들어 최초의 불전인 「숫타니파타」의 권위있는 국역본은 윤학스님(범우사, 1980)과 법정스님(정음문고, 1974)의 것이지만 일역본을 저본으로 삼은 중역판이다. 93년 출간된 민족사판 「숫타니파타」(석지현 역)는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팔리성전협회’의 영역본을 옮긴 것이다. 「아함경」의 경우엔 고익진 편역 「한글아함경」과 선우도량 편역 「정선 아함경」 등 한역 4아함과 팔리 5니카야와 범문을 두루 살펴 뽑아낸 역서들이 있다.

- 「원시불교 사상론」, 김동화, 1967, 동대출판부
- 「불교교리발달사」, 김동화, 동대출판부
-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 고익진, 1970, 동대출판부
- 「한글 아함경」, 고익진, 1981, 동대출판부
- 「원시불교」, 水野弘元 著·동봉 역, 1988, 진영
-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후지다 고다쓰의 저·이지수 역, 1989, 대원정사
- 「아함의 중도체계」, 이종표, 1991, 불광출판부
- 「아함경 이야기」, 마쓰야 후미오 저·이원섭 역, 1991, 현암사
- 「원시불교 자료론」, 최봉수, 1991, 경서원
- 「원시불교의 연기사상 연구」, 최봉수, 1991, 경서원
- 「원시불교와 형이상학」, 최봉수, 1991, 경서원
- 「원시불교 사상론」, 박경준, 1992, 경서원
- 「무아·윤회문제의 연구」, 윤호진, 1992, 민족사
- 「가려뽑은 아함경」, 범성 편·근본불교연구소 역, 1992, 선우도량 교육위
- 「아함정행경」, 성열, 1992, 법등
- 「원시불교의 실천철학」, 和辻哲郎 著, 안승준 역, 1993, 불교시대사
- 「새 아함경」(전9권), 이연숙, 1993, 인간사랑

—이상 「대중불교」 조사자료

- 「구사학」, 김동화, 보련각
- 「불교의 본질」, 中村元 著·양정규 역, 경서원
- 「붓다와 다르마」, 암베르카르 저·박희준 외 역, 민족사
- 「붓다의 가르침」, 울플라 라홀라 저·전재성/진철승 역, 한길사/대원정사
- 「상좌불교의 가르침」, 붓다다사 저·강진아 역, 불교시대사
- 「소승불교개론」, 테오도르 체르바츠키 저·권오민 역, 경서원
- 「앞의 해방 삶의 해방」, 범성, 한마당
- 「영원한 올챙이」, 에오시윌슈 저·강대자행 역, 고요한 소리
- 「원시근본불교 철학의 현대적 이해」, 칼 루파하나 저·조용길 역, 불광출판부
- 「원시불교」, 에리히 후라오바르너 저, 박태섭 역주, 고려원
- 「원시불교」, 나카무라 하지메 저·정태혁 역, 1994, 동문선
- 「원시불교」, 水野弘元 著·김현 역, 벽호
-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 최봉수, 1993, 불광출판부
- 「원시불교사상」, 김동화, 보련각
- 「초기불교교단과 계율」, 사토우 미즈오 저·김호성 역, 민족사

—이상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자료제공

더 시급한 「한글대장경」의 온전한 원역

1차원전의 한글옮김과 원전을 통한 원시불교 연구는 고고학적 취미와는 전혀 상관없다. 대승불교야말로 궁극적 진리이며 우리의 불교라는 인식에는 이설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원시불교는 대·소승을 막론하고 기초·토대가 되는 불교이며, 그것의 경전은 대승경전처럼 사유의 극점을 보여주기도는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일화들이 붓다의 親說·眞說의 형태로 담겨 있으므로 연구되고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학 관계자들은 “원시불교와 원전을 다룬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은 최근 불교출판물의 한 특징적 면모”임에는 분명하지만, 시급하고도 중요한 佛事는 「한글대장경」의 온전한 원역에 있다고 결론짓는다.

—김중식 기자